國家와民族의새로운軍人으로出發할 學士들



母校 1976학년도 學位授與式이 지난 2月25日(金) 오전11시 大運動場에서 거행되어 學士 7백82명, 碩士85명, 行政大學院硏究課程 수료생 35명, 博士3명, 名譽博士 1명등 1천여명이 영예의 學位를 받고 社會에로 첫 발을 내딛었다.

本會 崔載九회장은 이날 後輩들을 격려하는 祝辭에서 『내 民族과 내 나라를위해 슬기로운 使命感으로, 誠實히 일하고 奉仕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崔會長은 이어 『非能率的이고 非生産的이며 浪費的인 모든 要因을 除去하는데 과감히 앞장서서 能率的이며 生産的인 社會氣風을 드높히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제하며,

『보다 責任있게
보다 誠實하게
보다 勤勉하게
보다 和睦하게
보다 奉仕的으로
우리 모두가 自己更新을 해야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모교總長 李瑄根박사는 式辭에서 『앞으로 生을 追求하여 보람의 꽃을 피우게될 社會는 競爭社會로 規定될 수있는 能力本位의 社會다』라고말하고, 『逆境에서 스스로中斷하는 者에게는 成就의 기쁨보다 踏步의아픔만이 있다。競爭에서 이기는 東國人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目標를 면밀하게 計劃하여 誠實하고 謙虛하게 공부하는 社會人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學位授與式에서는 全校首席을 차지한 李愚貞(政外科)군을 비롯 單大別 首席卒業者 7명이 總長賞을, 護國團간부와 특별공로자 20명이 공로표창을 각각 받았다.

本會 崔회장은 이날 前 學徒護國團 師團長 蔣東洛(政外科)군과, 本會선발 奬學生金昌基(行政科)군에게 공로표창패를 수여, 母校와 本會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했다.

〈관련記事 3·4면〉

發行人 崔 載 九
編輯人 尹 天 泳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㉗8568
交換 ㉗8131~9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전액보상책임지는…
車主賠償責任保險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26) 3111~5

迎春頌

金魚水

창밖 돌는 낙수
번져 드는 문턱으로
한겨울 갇긴 情이
실끌처럼 풀리는 날
꽃망울 저도 못이겨
터지고야 말다니
실버들 늘어진 길
노래 한창 퍼지는데
보리 싹 피는 언덕
푸른 바람 부서지고
저 건너 산마을 사람
쟁기 지고 나선다。
잔디 속잎마다
맑은 이슬 맺힌 아침
뿌연 아지랑이
연기처럼 피는 들에
가난도 저만큼 물러서
재를 넘어 가구려

〈39年·中央佛專·詩人·中央常任布敎師〉

東國人名錄 배부중!
3萬餘同門들을 收錄한 同窓會員名簿 4집 「東國人名錄」을 배부중이오니 本會事務局(㉗8568·中區筆洞3街26)으로 연락, 年會費를納付하신뒤 册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8백페이지)

東友提言

「마음의 故鄕」인 母校로 늘 고개 숙여라

金寬性 (辛門專化惠・48 校長 東大附中)



大學 4년간, 혹은 大學院 2년간의 螢雪之功을 쌓고 榮光의 學位를 받은 卒業生들에게 뜨거운 祝福을 보낸다.

아울러 卒業과 同時에 우리 同窓會의 新入會員으로 入會하게된것을 같은 同門의 立場에서 眞心으로 환영하는바이다.

佛敎에서는 「길을가다가 소매자락만 스쳐도因緣」이 있는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같은 캠퍼스에서, 同一한建學理念아래 學問과 人格을 수양하여온 처지로서 東國을 母校로 하고 있음에 두말할나위없는 깊은 因緣을 맺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校門밖을 떠난다고 해서 東國과의 因緣이 다하는것이 아니며 또다른 次元인 同窓관계로서 모교와 밀접하게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제부터 母校가나에게 베푼 學問的 전문지식과 고매한 人格形成에 대한 고마움을 전제로 崛起은 母校愛의 發顯과 社會奉仕에의 出發을 새롭게 다짐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말해 모든 先輩들이 이나라 歷史進行의核으로서 各界各層에서 東國의 底力을 발휘하고있듯이, 신입회원 여러분들도 國家와 社會, 그리고 이民族과 人類를위해 부단히 정진해줄것을 기대하는바 큰것이다.

첫째, 우리는 母校가 半萬年 歷史의 우리民族의 精神的支柱 되어온 佛敎精神을 建學理念으로하여 民族의 未明을 깨우치며 英才들을 배출해낸民族의 大學임을 計持化해야겠다.

즉, 우리 母校는 平凡한 大學이 아니다. 적어도 特殊性을 가진 大學이다. 三國時代의 찬란한 佛敎文化며 護國思想, 高麗의 八萬大藏經간행, 李朝의 義僧活動등은 母校속에 깊이 民族의 저력이자 맥박이다.

우리에겐 眞正으로 民族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것인가」의 과제가 던져져있다.

둘째, 母校는 學問과 硏究와 奉仕의 產室로서 學生으로 變質되어 新興大學과 同質化되는, 즉 傳統이 褪色되는 느낌이 없지않아 內心 不滿스러울때가 많다. 이의 克服을 위해 大學門을 나선다고 해서 學究生活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배우는 場所를 實社會로 옮겨 繼續 학문하는 자세로 人生工夫도 시작해야하는 일장이어야하며 늘 경쟁을 의식하며 발분해야겠다는 것이다.

세째, 母校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永遠한 마음의 故鄕임을 명심해야 겠다.

우리는 일생의 가장중요한 시기를 母校에서보낸 셈이다. 母校는 자기가정이상의 인격교육장으로서 인격형성의 기반이된곳이다. 따라서 國籍은 바꿀수 있다손 치더라도 校籍만은 결코 바꿀수없다는 엄연한 이치를 수긍하며 이기회에 『母校가 同門들을 위해 무엇을해 주었는가를 말하기전에 同門스스로가 母校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깊이 반성해야겠다. 모교만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자세가 優先해야겠으며, 모교를 形式보다는 實質的 즉 物心兩面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영원한 主人이되어야겠다는것이다.

네째, 東國을 나온 긍지로서 知性人으로서國家와 社會의 밑거름이될것을 다짐해야겠다. 佛敎는 우리國家는 물론 人類의 平和를 구현하려는 世界的성격을 띠고있다. 먼저 우리는 『내마음이 아름다우면 온世界가 아름답다』는 고결한 마음, 즉 자기자신의 마음을 맑게함으로써 사회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와인류에까지 빛을 발하는 전레를서 佛敎的인 人類도야에 보다 솔선해야겠다. 전국적인 社會의 指導者로서 지침되던 傳統을 간직하고 있으며, 나아가 文學傳統등은아니라 精神文化를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慰와 自慢은간혹 試行錯誤와 安逸・惰風을 크게 떨치고 있는 71년 傳統의 大學임을그냥 간과해서는안되겠다.

우리 母校는 私學의名門으로서 이나라 高等敎育의 代名詞로 지칭되던 傳統과 빛나는 傳統을 계승하여 나갈 責務가 있으며, 나아가 文學傳統등은아니라 精神文化를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慰와 自慢은간혹 試行錯誤와 安逸・惰風을 크게 떨치고 있는 71년 傳統의 大學임을그냥 간과해서는안되겠다.

우리 母校는 私學의名門으로서 이나라 高等敎育의 代名詞로 지칭되던 傳統과 빛나는 傳統을 계승하여 나갈 責務가 있으며, 나아가 文學傳統등은아니라 精神文化를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慰와 自慢은간혹 試行錯誤와 安逸・惰

韓國文人協會 理事長 당선

"人和團結에 最善다할터"



徐廷柱 (大교수 文理大 文人・詩)

詩人이며 모교 文理大교수인 徐廷柱(中央佛專 35・文人協會제16차 동문이 지난1월31일 韓國文人協會 정기총회에서 새이사장에 당선되었다. 趙演鉉동문에이어 새이사장에 선출된 徐동문은 『會員상호간의 人和단결에 최선, 잠을 아껴 소갈을 밝혔다.

豊川化纖(주) 代表理事취임

大企業體 重役등 활동多彩



成正基 (豊川化纖(주) 社長)

咸正基(51・政 造元인 豊川化纖(주) 社長에 咸동문은 大德실유(주) 사장, 민주공화당 전무등을 역임했다. 또한 서울青年會議所(JCI) 제10대회장과, 제17회 世界青年會議所(於홍콩) 韓國代表등을 지냈으며 東大新聞 창간호 편집위원을 말기도 했다.

新民黨 院內總務에 취임

天安・天原・牙山 出身



黃明秀 (國會議員・本會부회장)

國會議員 黃明秀(53・政 本會부회장)

◇昇進・榮轉・轉補

▲申相斗(64・法) ‖부산지검검사로 전임
▲李福衡(56・法) ‖駐코스타리카 대사관이사관 승진
▲金容宣(60・國文) ‖서울시 수도국 경리계장 ▲趙暻鎬(63・法) ‖충구청 시민봉사실장으로 ▲金貞根(60・經) ‖龍山구청 토목과장으로 ▲金實(61・林) ‖서울시청 조경과제2계장으로 ▲崔鍾文(58・林)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鄭淳泰(59・法) ‖수원검찰지청 사무과장으로 ▲莊昌福(57・法) ‖노량진경찰서 경비과장으로 ▲李相律(57・法) ‖원호처 교육보호과장으로 ▲韓昌錫(52・經) ‖한전 청주지점차장으로 ▲조중진(58・政) ‖한전노무과장으로 ▲김태연(60・經) ‖한전거창영업소장으로 ▲이학태(62・法) ‖한전마산지점 경리과장으로 ▲이현상(76・經院) ‖자동차보험 (주) 남대문지점 ▲朴哲(73・經濟) ‖자동차보험 남대문지점 ▲黃日昌(75・경영) ‖자동차보험 남대문지점 ▲한창석(52・經) ‖한전 청주지점차장으로 ▲조중진(58・政) ‖한전노무과장으로 ▲이영진(69・商) ‖자동차보험중부지점 ▲이정웅(70・經) ‖자동차보험부산지점 ▲李炳華(64・政外) ‖태평양화학 부산지점장에서 본점 시장조사과로 ▲李信日(75・農) 農協중앙회 차관사무국으로 ▲유성영(67・農) ‖서울시청녹지과로 ▲崔璟煥(74・行院) ‖파나여행사 ▲李義邦(56・經) ‖투자신탁(주) 재형부장으로 ▲崔鍾台(67・農) ‖충남방적(주) 기획관리실과장으로 ▲金元浩(57・經) ‖입직업재활원 조합영업담당상무로 ▲김정욱(66・法) ‖商業銀行 獨立門支店으로 ▲金龍東(54・英文) 住宅銀行 千鍾柱(58・法) ‖春川地檢사무과장으로 ▲文泰植(49・전문・아주산업(주) 社長) ‖업무차 日本다녀옴. ▲關容植(49・전문・一宇해운(주) 社長) ‖업무차 日本다녀옴. ▲鄭勝道(69・商・自動車保險(주) 전산부대리) ‖2月11日~21日까지 약10일간 日本의 EDPS현황을 견학하고 同社內에 컴퓨터 CMC-5 (Data Entry System)의 설치에 따라 同사 人力장치 활용방안을 연구키위한것. ▲이민휘(56・政・在美) ‖일시귀국. ▲林德圭(61・法・英文月刊「外交」 발행인) ‖中동 5만원을 東進會에 기탁했다.

同門動靜

안과처방조제
(고려병원・김희준안과지정)
고려안경원 문화방송・광화문쪽30m 동문의집・(72)0524

本人의近況이나, 주의 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 으시면 언제든지 提報 바랍니다.

<無順・敬稱略>

淑明女大 圖書館長에 부임

淑大新報 主幹도 역임해



鄭世鉉 (淑大教授)

淑明女大 教授 鄭世鉉(57・史 本會理事) 동문이 同校圖書館長에 任命되었다. 한편 鄭동문은 本會파견 東國學院理事으로 활약하고있다.

有元建設(주) 專務理事취임

放送協會서도 多年間 활동



崔載福 (有元建設(주) 專務理事)

崔載福(58・國文) 동문이 有元建設株式會社 專務理事로 취임했다.

在學時節 초대 학예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崔同門은 放送劇作家로서 韓國放送協會 광고심의위원회 상임간사겸 기획조사부장, 국회의원 비서실장등을 지냈다.

法務部 교정국장으로 榮轉

檢察系統서 30여년간 奉職



宋鍾辰 (法務部・교정국장)

宋鍾辰(76・經院) 동문이 釜山支檢 檢事長에서 法務部 교정국장으로 榮轉되었다.

宋동문은 49年 辯試에 合格, 50年 서울地檢검사를 스타트로 大邱・서울地檢部長검사, 서울・光州高檢차장, 淸州地檢검사장, 大檢檢事등 要職을 두루 거쳤다. 宋同門은 현재 모교大學院에서 박사과정을 밟고있으며, 徐玉鎭(梨大교수) 女史와의 사이에 一男二女를둠.

新民黨 事務次長에 任命돼

居昌・山淸・咸陽地區 出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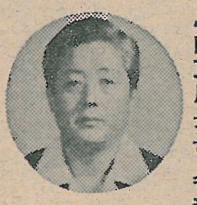
金東英 (國會議員)

國會議員 金東英(60・政外・本會理事) 동문이 지난 2月4日의 新民黨 事務次長으로 任命되었다.

金同門은 慶南 居昌・山淸・咸陽地區出身으로 조직부장을 역임한바있다.

韓電城西支店長으로 榮轉

馬山支店長등 各部署거쳐



姜化燁 (韓國電力(주) 城西支店長)

韓國電力株式會社 姜化燁(59・經) 동문이 서울城西支店長으로 영전되었다. 同社에入社한 姜동문은 1961년 各部署와 馬山지점장을 역임했다.

國民銀行 盤浦支店長 전임

銀行系統서 뼈굵은 베테랑



趙漢晟 (國民銀行 盤浦支店長)

國民銀行 趙漢晟(49・전문) 동문이 江原東草支店長에서 盤浦支店長으로 轉任되었다.

趙同文은 60年 入行한이래 인사부, 남창동지점과 용산지점차장, 평화지점차장등을 거쳐 이번 국민은행 系統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현재 東友會모임인 「東民會」 회장직도 맡고있다.

在美디트로이트韓人會長

일시歸國해奬學金도寄託



朴秉洙 (가社 「웍・가든」 가발회사 사장)

在美 朴秉洙(61・法) 동문이 지난2月11日 사업관계로 일시 귀국, 奬學基金으로 5만원을 寄託했다.

朴同門은 63年 渡美, 70年 일리노이주립대학 정치학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디트로이드大學院 政治學博士코스를 밟고있다. 在美 디트로이트 韓人會長이기도 하고 있다.

大檢察廳公安部長에전임

韓 沃 申 (大檢 檢事)

大檢察廳 검사 韓沃申(65・大院) 동문이 지난2月17일자로 특별수사부장에서公安部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太平洋粧業(주) 영업常務로

李 秉 玉 (太平洋粧業Co. (주) 영업常務)

太平洋化學(주) 李秉玉(58・經) 동문이 영업1부장에서 太平洋粧業(주)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승진되었다.

日本NTV드라마演出

金 在 衡 (TBC・TV 제작부국장)

TBC・TV제작부국장 金在衡(61・國文) 동문(天女花연출자)이 日本NTV가 韓國서제작한 드라마의연출을맡게되었다.

總務處민원상담실장榮轉

承 天 錫 (總務處 理事官)

總務處이사관 承天錫(62・經) 동문이 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에서 민원상담실장으로 영전되었다. 承동문은 총무처비상계획관과 감사담당관등을 역임했다.

처녀詩集「後日譚」발간해

曺 商 箕 (同德女中高교사)

詩人 曺商箕(62國文・同德女中高교사) 동문의 처녀 詩集「後日譚」이 발간되었다. 지난 66년 中央日報新春文藝 당선이래 10여년동안 발표한 작품중에서 52편을 골라 수록했다. 敎學社발행.

「야스퍼어스哲學」내놓아

李 선 숙 (母校 哲學科講師)

母校 哲學科講師 李善淑(62・哲) 동문이 著書 「야스퍼어스哲學」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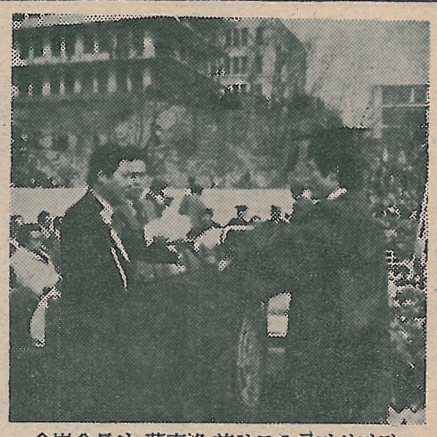
東으만國, 印度, 필리핀政府초청으로 지난1月22日 出國했다가 귀국.
▲白永哲(61・法・국회의장보좌관) 「튀지니」 日本등을 다녀옴. ▲송영인(67・율제) 업무차 日本 ▲朱永仁(67・統) ‖업무차 日本 ▲柳周擊(57・農・농협) 해외여행 마치고귀국 ▲洪淳池(52・政・사회) 太平洋트로즈 日本 다녀옴. ▲黃明秀(53・政・國會議員) ‖2月12日 업무차 日本 다녀옴. ▲崔炯旭(62・政・在美) ‖일시귀국. ▲李炳華(64・政外) ‖태평양화학 부산지점장에서 본점 시장조사과로 ▲李信日(75・農) 農協중앙회 차관사무국으로 ▲유성영(67・農) ‖서울시청녹지과로 ▲崔璟煥(74・行院) ‖파나여행사 ▲李義邦(56・經) ‖투자신탁(주) 재형부장으로 ▲崔鍾台(67・農) ‖충남방적(주) 기획관리실과장으로 ▲金元浩(57・經) ‖입직업재활원 조합영업담당상무로 ▲김정욱(66・法) ‖商業銀行 獨立門支店으로 ▲金龍東(54・英文) 住宅銀行 千鍾柱(58・法) ‖春川地檢사무과장으로 ▲文泰植(49・전문・아주산업(주) 社長) ‖업무차 日本다녀옴. ▲關容植(49・전문・一宇해운(주) 社長) ‖업무차 日本다녀옴. ▲鄭勝道(69・商・自動車保險(주) 전산부대리) ‖2月11日~21日까지 약10일간 日本의 EDPS현황을 견학하고 同社內에 컴퓨터 CMC-5 (Data Entry System)의 설치에 따라 同사 人力장치 활용방안을 연구키위한것. ▲이민휘(56・政・在美) ‖일시귀국. ▲林德圭(61・法・英文月刊「外交」 발행인) ‖中

矜持와 使命感의 東国人되길

2月25日學位수여식 新入會員 1천여명誕生

本會 新入會員을 맞아들이는 76學年度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25일(金) 오전 11시부터 모교 大運動場에서 거행되었다。이번 학위수여식은 李道根總長을 비롯한 財團、宗國과 本會 崔敏九 회장등 同窓會 관계인사및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三歸儀禮의 주악으로 開式되어 학위수여 總長式辭、理事長告辭、同窓會長 祝辭順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崔敏九회장은 祝辭를 통해 『모교는 4년간、大學의 영원한 主人으로서 모교발전과 國家발전 지식습득과 人格도야의 場이었다』고 전제、『母校東』고 격려했다。



◇崔會長이 前학수여하고 있다。 洛東 蔣도호국단사단장에게 공로패를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全 校首席 李愚貞(法政大・政外科)군을 비롯한 學士7백82명、3개大學院석사85명、행정대학원연구과정 35명、박사 3명、名譽博士1名 등 1천여명이 영예의 학위를 받았다。이어 상장수여식에서는 首席을 차지한 李愚貞군을 비롯 單大別 수석졸업자 7명이 總長賞을 받았으며、前사단장 蔣東洛군을 비롯한 護國團 간부등 특별공로자 20명도 공로표창을 받았다。

각 單大別 首席卒業者는 佛教大손필숙(佛教)、文理大 오택원(國文)、法政大 이우정(政外)、經商大 유양훈(經營)、農林大 류종승(農經)、工科大조철군(化工)、師範大 이애숙(家教) 양등이다。

한편 박사학위는 政治學博士에 金翰周(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총무부장)、沈定根(江原大學教授)、農學博士에 朴重春教授(진주농대) 등이 영예의 학위를 받았다。

太完善會長에 名譽學位

또한 이날학위수여식에서는 太完善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에게 우리나라 商工業發展에 기여한 업적과 공로로 명예 경제학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太完善회장

NIH招請渡美 金宜洛등문

카톨릭醫大 조교수金宜洛(65・化・本會理事) 동문이 美연방후생국(NIH) 초청으로 유타大學유학차 지난 2월26일 出發。金同門은同大學에서 2~3년간 生化學을 연구할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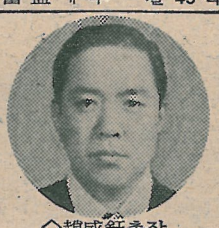
在仁 東友會 77년도첫理事모임

在仁川東友會 1977年度 첫 이사회가 孟殷在회장을 비롯 28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장학기금 1백만원(속석에서45만원 協贊署名) 모금을 결의했다。

지난 1月22日(土) 오후 7시 仁川市內 금화식당에서 열린 이날 모임은 孟회장의 新年人事、許瑁(富平東中교장)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토의사항으로① 정기총회및 이사회의 擴大여부② 「東國文學의 밤」(해가을경) 을 年例行事로 개최할것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식회의를마친 임원들은 적사대회 (개인전및 단체전) 를 열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趙成鈺忠南大총장 母校서名譽法博



◇趙成鈺총장

우리나라 高等教育界에기여한 업적과 공로로 忠南大 趙成鈺총장이 모교에서 名譽法學博士학위를 수여받았다。

東青會월례회

東青會(회장=趙碩行) 1月 정기月例會가 지난 1月29日 오후3시 김정용회원댁에서 열려 장학기금분담금의 조속수납등에 관해 논의했다。한편 同會는 2月19日엔 申相斗회원의 부산지검 검사전출에 따른 환송연을 全會員참석리에 시내 장원에서 열었다。

本會출신 세 議員 韓日議員총회참석

지난 2월14일 日本 東京에서 열린 韓日議員聯盟 총회대표로 本會 崔敏九(52・國) 金殷夏(52・政) 金鎭福(52・政) 등 세의원이 참席하고 19일 귀국。

金東英・安鍾烈의원 國會 商工委소속議員인 金東英(60・法) 安鍾烈(69・行院) 두동문이 지난2월25일 구라파제국의 상공업분야를 시찰키 위해 출국。

崔炯佑의원 出國

崔炯佑(63・政外・國會議員) 동문은 스위스및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부역박람회에 참석키 위해 지난 8일 현지로 떠났다。오는 4월3일 귀국예정인 崔동문은 이번 出國길에 英國・그리스등 구주10개국을 순방케 된다。

新年交禮겸해 제24차 定期理事會열어

崔會長 "一致團結로 校勢 보다드높게"

奬學基金 造成마무리등 論議

제24차 定期理事會겸 新年交禮會가 崔敏九회장을비롯한 理事 6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지난 1월21일(金) 오후6시 시내 外交구락부에서 열렸다。

이날 理事會는 이사간의 新年相見禮가 있은다음 崔敏九동창회장의 新年人事및 경과보고가 있었다。

崔회장은 新年人事를 통해 새해는 母校가 70年전통의 바탕위에 새역사창조의 章을 여는 첫해임을강조하고 『모교명예가 到處에서 빛나게 3만동문이 서로돕고、이끌고、아끼는 氣風을진작시키자』고말했다。

이어 장학기금조성에 관한 논의를 벌여 ①서한발송(58년 三英學院원장) 등 ②방문및 전화 ③조찬회 ④각단위모임 권장등의 방법으로 적극 추진키로결의하고 간단한 칵테일로알찬 한해를 다짐했다。

數學科 정기총회

數學科東友會 정기총회가 지난 1월15일(土) 오후3시 모교 大學院 A세미나실에서 열려 會長에 洪性漢(58년 三英學院원장) 동문을 再選시켰다。

會員 50여명이 참석한이날 정기총회는 李春信동문사회로 모교 崔德熙교수의 祝辭、이해용동문의 경과보고에 이어 회칙심의및 임원개선、장학기금조성결의순으로 진행되었는데、本會에서는 尹天泳사무국장이 참석、격려했다。

▲회장=洪性漢 ▲부회장=李協永(59年・사업)李駿鎬(62・再保險公社 보험과장) ▲감사=趙南翼(66年・大東商高)박영태(경북여상)

農經科임원회의 사업계획등논의

農業經濟學科東友會(회장=權五甲) 임원회의가 지난 2월8일(火) 오후7시 버드나무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학기금의 조속수납및 조직강화방안과 77년도 사업계획등을 논의했다。

慶北支部任員개선 會長에 李禹出 동문



◇李禹出회장

慶北支部(회장・朴辰熙) 1976년도 정기총회가 작년 12月4日 大邱市內 星예식장에서 열려 禹出(能仁高校長) 동문을선출했다。

회원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모임에서는 76年度 經過報告와77년도事業計劃수립에이어 任員選出을 마쳤다。

▲顧問=朴辰熙(52・專門・慶北鑛油(株)社長) ▲會長=李禹出(48・佛・能仁高校長) ▲副會長=南光朝(53・經・南城織物代表)、金炯秀(58・國文・曉星女大敎授)、金成昊(65・法・建設共濟組合總務理事)、鄭錫柱(66・政・大學印刷社長)、吳南洙(65・經・星禮式場) ▲監事=金相俊(70・專成中高校敎師)

東民會 신년定總 회장에 趙漢晟동문

國民銀行同窓모임인 東民會정기총회가 지난2月12日(土) 오후4시 趙漢晟회장 宅에서열려 임원개선에이어 장학기금납부방법등을 논의했다。

▲회장 趙漢晟(49・전문・반포支店長) ▲부회장 金天壽(57・經・석관동지점장) 李鍾范(60經・法・양평동지점장) ▲감사 金勳植(58・經・장위지점차장)

▲총무 李在寧(62・經・심사부심사역) ▲회계 金天經(71・經・심사부)

本會奬學金 李明淑・元鍾善에

1977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에해당하는 各人當 11만3천6백원씩이다。

趙熙榮동문 西獨서出版紀念會

母校經商大助敎授겸經營大學院學監인 趙熙榮(63・經營・經博) 동문의 渡獨留學時 博士學位논문인 「韓國經濟發展을 위한 銀行制度의 意義」가 西獨 「본」대학 出版紀念연구소에서 출판되어 지난 2月1日 同대학 축하리셉션에서 발표회를 가졌다。이와관련、趙동문은 지난2月27日出國、12월 2276년 귀국했다。

銀行用・事務用・家庭用
FIRE RESISTIVE SAFE
榮一金庫
日本興平(구마히라)技術學校
서울・을지4가(4가로타리) ☎(27)6407・6408

국내 관광의 선구자
<영업안내>
◉관광버스전세 ◉항공권 예매
◉국내관광 알선 ◉신혼여행상담
◉해금강 관광호텔에약
기차표, 고속버스표판매
CHO HOA TOURIST
초화관광주식회사
72-5341~5

고객본위・친절봉사
임성기약국
동대문・중앙등록 전화(53)9955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李西翁동문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李西翁(俗明=商純・35年中央佛專) 동문。

佛教의 大衆化・現代化로 佛國淨土이룩

大學의 特性 살리면서 發展 꾀해야

○…『군본바탕이 없는 科學文明의 한계점이 도래한 이 時代에、全人類를 平和롭고 幸福하게만 해드는 願力이 바로 佛法이다』라고 說法하려는 佛教界의 最高指導者인 宗正 西翁동문은 『科學과 모순이없고、또한 이 科學을 초월하는 自主・自律的인 宗教가 바로 佛教』라고 강조하며、『佛教는 宗教가 아니라 그 이상의 진리인 것이며、이미 경기도양주군 봉선사(光東中高) 주지로 부터 戒를 받았다。

현재 僧侶교육에있어 母校의 승가학과는 學問에 그치고 있으므로 學問과 修行을 겸하는 명실상부한 僧伽大學의 設立을추진중이며、이후 지금까지 약50여년동안 수도생활을해온 西翁宗正은 『모교발전에 관심을 보인 것은 곧 僧侶의 책임이라고 일깨운다。

○…中央佛專1학년 (17세) 때 祖父・母親을 한해에 死別하여 인생의 無常함을 깨우친 西翁宗正은 당시 時代的狀況이 日帝下인지라 꿈을 실현할 수없다는 울분을 깊이 삭이고、나와 民族의 구제를 위해 차라리 出家하기로決心、그해 여름방학에 白羊寺 송만암스님으로 부터 戒를 받았다고한다。

○…西翁宗正은 1912년 忠南論山出生으로養正高普를 졸업했으며、禪의 大學이라는 금지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꾀해야할것이라고 피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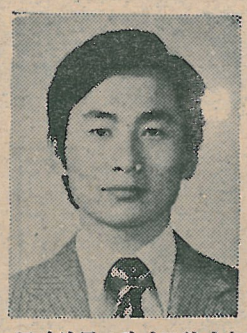
○…西翁宗正은 『建學理念인佛教精神은 우리國家와 人類를 구제해온 眞理인만큼 그 特性을 살리면서 大學의 任務를 성실히수행해야한다』며、또한 同門들은 『우리母校가 民族의 大學이자 人類의 大學이라는 긍지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꾀해야할것』이라고 피력한다。

○…한편으로 모교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西翁宗正은 『建學理念인佛教精神은 우리國家와 人類를 구제해온 眞理인만큼 그 特性을 살리면서 大學의 任務를 성실히수행해야한다』며、또한 同門들은 『우리母校가 民族의 大學이자 人類의 大學이라는 긍지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꾀해야할것』이라고 피력한다。

○…西翁宗正은 1912년 忠南論山出生으로養正高普를 졸업했으며、禪의 大學이라는 긍지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꾀해야할것』이라고 피력한다。

○…西翁宗正은 1912년 忠南論山出生으로養正高普를 졸업했으며、禪

首席 卒業者 李愚貞 동문



大學入學 首席도 院도

首席卒業 學士 76학년도 母校 政治外交學科의 평균성적은 93점1。

이번 77학년도 入試에서 政治科 入試 二冠王이 된 李愚貞동문은 『4年前 入學試驗에 失敗하고 재수끝에 大學入試에 합격했다』는 이제 못내 아쉬운 듯 『科目別 점수배점이 달랐기 때문에 (?) 면서 『善意의 競爭者』인 同門들에게 『풀리는 문제가 곧 내 것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했다。

李동문은 『1백점 만점에 평균 90점이면 首席合格하여 장학금을 받는 것만이 목표였던 것이 아니라 學問을 하며 고뇌하는 동안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곧 學問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學問은 결코 立身出世의 수단이 아니라 眞理

「東国」과의 因緣 偶然아니다

——卒業祝辭



長會窓同
崔 載 九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高僧大德 스님을 비롯하여, 內外貴賓과 學父母님을 모신자리에서 榮譽의 졸업식을 갖게되는 여러분에게 본인은 東國大學校 3만여 同門을代身하여 진심으로 祝賀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指導해 주신 母校總長 李瑄根博士를비롯한 教授 직원 여러분의 勞苦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敬意를 표하고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卒業生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 나라의 새 役軍으로 희망찬 出帆을 하게되었읍니다。 여러분의 洋洋한 前途에 無限한 축복을 보내면서 또 마디의 부탁으로 격려를 보내드리고저 합니다。

첫째、이제 여러분은 國家의棟樑으로서 나라가 處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直視하여 確固한國家觀으로 내 民族과 내나라를위해 슬기로운 使命感으로、성실히 일하고 奉仕하는 자세를 確立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國家의 保衛를위해、또한 나라의 發展을 위해 先峰的인 역할을 擔當해야 하며、또한 겨레를 이끄는 指導者的 位置에 서있는「엘리트」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이러한 책임과 使命을지닌 여러분은 이 나라·社會에서 非生産的이고 非能率的인 모든 요인을 除去하는데果敢히 앞장서서 能率的이며 生産的인 社會氣風을 드높히는데 힘써야 하겠읍니다。

보다 責任있게
보다 誠實하게
보다 勤勉하게
보다 和睦하게
보다 奉仕的으로
우리 모두가 自己 更新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아우님 여러분!

우리 母校의 校訓인 攝心·慈愛·信實·度世는 바로 이러한指導的 人間像을 목표로한 主體的 自覺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째、先輩로서 아우님 여러분들에게 또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그 많은大學가운데서 선택된「東國」을 나왔다는 因緣을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항상 母校의 발전이 여러분의 보다積極的인 참여와 聲援에 依해서더욱 촉진된다는 점을 깊이 銘心해 주기 바라는것입니다。

한동안 沈滯했던 우리의 母校는 이제中興과 跳躍의 기반이점 차 다져져 가고 있읍니다。東國의 전통과 古稱를 지닌 民族의大學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오랜歷史에 對하여 이제 여러분은 긍지와 自負心을 가지고 펏펏이 社會의 모든 活動에서 늠름하게對決하는 進取的인기상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모교에대한 愛校心에서만이 發露될것이며 이러한정신이 뭉쳐졌을때 우리 모교발전은 不退轉의 결의로 굳게 뭉치고있읍니다。

그러나 東國人들이 염원하는 한결같은 東國發展의 여망에는 아직도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오늘, 이 졸업식전에서 敢히·모든 동문 東國人에게 峻嚴한 自己反省을 구하지않을수없읍니다。財團과、學당국과、在學生과、同門이 즉 東國人은 東國發展을위하여 다시한번 굳건한 결의를 다져야할 때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이제는 一部 殘存하고있는 안일과 타성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하고신념있는 發展意志를 高調시켜야겠다는것을 특히 강조하는바입니다。

끝으로、평소 이사람이 존경하는 太完善선생의 명예박사학위수여와 刻苦의 보람으로 박사학위수득하신 세분과 그리고 석사·학사학위를 取得하신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오며、졸업생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에 부처님의 加護로 영광이 같이하시기를 빌면서 가름합니다。 祝辭

豊饒한 未來 위해 發展意志 지향

「엘리트」다운 確固한 國家觀 정립



한우리민족이 처해있는 역사적 여건이나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국제정세가 꿈많은 자네들을 안심하고 내보내고 그 전도를축복만 하기에는 너무나 험난하고 냉혹하기 때문이리네。

K군!

비록 우리의 학교생활이 이상적이고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었고 또한 자네를 맞이하는 사회의 여건이 호의적이고 따뜻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자네는 「동국인」의 한사람으로서사회에 참여하게 되었고、하지않을 수 없으니 만치 나는 선배 동국인으로서 세가지만 부탁 하겠네。

무엇보다도 자네는 앞날이 만리같은「젊은이」란 사실을 잊지말게나。항상 젊은이의 용기와정열을 가져야하네。이상에 대한 신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는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타협을 말고 악에 지지 말게。악과의 타협은 곧 선에의배신이 되네。항상 선을 향하여용감해야만 하네。자네가 젊다는사실이 자네의 유일한 힘이요、자랑이란점을 명심하게나。

또한 자네는 자신이「동국대학교」의 문을 나온 지성인임을잊지말게。아무리 우리나라에 대학이 흔하고 대학생이 많다하더라도 역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내가 왜 자네의 졸업을 기뻐하지않고 축복하지 않겠나。

다만 우리가 4년동안에 걸친 그「폿시간」동안에 파연 최고학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훌륭한 시설속에서 완전한 교육을 자네들에게 했던가。그리고 그같아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했던가 라고 양심에 물어볼때 차마 떳떳하게 그랬노라고 대답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또 하지 말아야하겠네。간단히 말하면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책을 멀리하지말고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틈틈이 영화、음악、미술을 감상하란 말이네、신문、잡지를 꼼꼼하게읽고…

그많은 대학가운데서도「동국」을 나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자네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네。

사실 학교간의 경쟁의식은 졸업식전에서 「다음시간에 봅시다」하면 그게 바로「다음「주일」을 의미하지 않던가。말하자면「폿시간」을 넘기고 나면 일년이훌쩍 지나가는것이란 말일세。이제 자네와 사제간으로서나라는 「동국대학교의 동문」으로서 사회생활의 선후배가 되었으니만치 그날 자네에게 미처못다한 얘기를 이자리에서 자네와 자네의 친구들에게 들려줄까 하네。

K군、

대학의 교문을 나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자네에게 그저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지 못하는것이 못내 안타깝다네。어째서 그럴까。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내가 왜 자네의 졸업을 기뻐하지않고 축복하지 않겠나。

다만 우리가 4년동안에 걸친 그「폿시간」동안에 파연 최고학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훌륭한 시설속에서 완전한 교육을 자네들에게 했던가。그리고 그같아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했던가 라고 양심에 물어볼때 차마 떳떳하게 그랬노라고 대답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또 하지 말아야하겠네。간단히 말하면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책을 멀리하지말고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틈틈이 영화、음악、미술을 감상하란 말이네、신문、잡지를 꼼꼼하게읽고…

그많은 대학가운데서도「동국」을 나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자네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네。

사실 학교간의 경쟁의식은 졸업식전에서 「다음시간에 봅시다」하면 그게 바로「다음「주일」을 의미하지 않던가。말하자면「폿시간」을 넘기고 나면 일년이훌쩍 지나가는것이란 말일세。이제 자네와 사제간으로서나라는 「동국대학교의 동문」으로서 사회생활의 선후배가 되었으니만치 그날 자네에게 미처못다한 얘기를 이자리에서 자네와 자네의 친구들에게 들려줄까 하네。

K군、

대학의 교문을 나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자네에게 그저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지 못하는것이 못내 안타깝다네。어째서 그럴까。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내가 왜 자네의 졸업을 기뻐하지않고 축복하지 않겠나。

다만 우리가 4년동안에 걸친 그「폿시간」동안에 파연 최고학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훌륭한 시설속에서 완전한 교육을 자네들에게 했던가。그리고 그같아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했던가 라고 양심에 물어볼때 차마 떳떳하게 그랬노라고 대답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또



비록 우리의 학교생활이 이상적이고 만족할만한 것이 못되었고 또한 자네를 맞이하는 사회의 여건이 호의적이고 따뜻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자네는 「동국인」의 한사람으로서사회에 참여하게 되었고、하지않을 수 없으니 만치 나는 선배 동국인으로서 세가지만 부탁 하겠네。

무엇보다도 자네는 앞날이 만리같은「젊은이」란 사실을 잊지말게나。항상 젊은이의 용기와정열을 가져야하네。이상에 대한 신념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는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타협을 말고 악에 지지 말게。악과의 타협은 곧 선에의배신이 되네。항상 선을 향하여용감해야만 하네。자네가 젊다는사실이 자네의 유일한 힘이요、자랑이란점을 명심하게나。

또한 자네는 자신이「동국대학교」의 문을 나온 지성인임을잊지말게。아무리 우리나라에 대학이 흔하고 대학생이 많다하더라도 역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李瑄根 母校總長의 入學式辭



首都서울의 南山 동쪽언덕, 이 광장에 명랑하고도 씩씩한 모습으로 참석한 新入生 諸君!

韓國佛教 1천6백여년의 正脈과 현세기 大學史上 만70여년의 歷史를 자랑해온 우리東國大學校의 學生으로 諸君들이入學하게된 것을 本人은 이大學의 全教授, 직원과 여러분의 父母와더불어 衷心으로 환영하는바입니다。

이제 諸君들은 一生을값있고 豊饒하게 살아갈수있는 자기力量을 本格的으로 整備하고 蓄積하기위하여 가장 緊要한大學教育의 과정을 本校에서 履修, 연마하게되었읍니다。여기에서 諸君들은 榮光된조국과 겨레앞에 새삼 마음을가다듬고 전공할分野의 學問을 選擇하여 자기적성의 知識과技術 그리고 광범한 應用能力을 함양하기위하여 보다 持續的인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하겠읍니다。전공분야라함은 學問의 細分化와 직업의 專門化, 多様化에서 오는現代國家의 趨勢이자 要請이며 高度成長으로 치닫는 경쟁사회에서 적극적으로 生存을누리는 불가결의 與件입니다。

모든 學問이지닌 그特殊性과專門性은 미래를지향하는 國家社會의 建設을위하여 가장 緊要한 추진력이기도합니다。따라서 大學은 결코 現實的인知識이나 기술의효용성에만 치중하는 職業學校가아니요, 보다 次元높은 眞理探求의 전당으로서 기대되고 동경되는 理由이며 그만큼 전공학과로 細分되고 深化되는것입니다。

여기에 新入生 諸君들은 지금까지의 단순한회의와 방황을지양하고 자기의 專攻分野를찾아 信念과 긍지를지니고 勤勉·誠實하게 추구할수있다는것을 銘心하기 바랍니다。

학문의길은 世俗的인 안일을등진 苦難과 艱難의길입니다。그러나 國家와 人類社會의 福祉指向的인質과量을 深化擴大시키고 개척하여주는 지식과 기술은학문의 險路에서 얻어진성과입니다。

대학생활은 지식과 낭만의 調和속에서 試鍊되고 영위되어야합니다。질서를 파괴하는 탈선과퇴폐적인 풍조를 배격하고 미지의世界에 도전하는 야망에 찬 覇氣가 내면화하는 곳에 대학생의 참된멋과 낭만은 있는것입니다。

끝으로 金剛經 序文에 부처님은「處一塵하되 圍六合」이라는진리의 말씀이 있읍니다。

이를 풀이하면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않는 하나의 티끌에도 계시고 同時에 六合이라는 우주도 그품에 포용한다는 뜻입니다。여러분은 앞으로 4年間 이나라의 가장 슬기롭고 용감한 國民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함양하는 동시에 크게는 전인류사회와 우주까지를 한 품에 안을수 있는위대한 가치관과國家世界觀의창조자가 되어주기를부탁하는바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統一祖國의영광과 함께 부처님의 加護가 끊임없기를 빕니다。

1977年度新入生실태

母校東國을 향한 열망은 예년에없이 높아졌다。後期大가운데 가장높은 3·5대1의 비율은 관문을 뚫고 새東國人으로 1천3백10명이 선발되었다。東國의 새역사를 짊어질 후배들의 모저모를 신입생 입학원서를 토대로살펴본다。

高別出身

<男10명以上, 괄호안은작년도합격자수>

出身高校	合格者數
徽文	26(27)
京東	25(22)
東大附高	21(33)
明知	20(—)
영등포	20(13)
城東	20(22)
漢城	19(24)
培材	18(32)
東星	18(23)
龍山	18(27)
서라벌	18(10)
普成	18(21)
景福	17(21)
仁昌	16(22)
中東	15(25)
景城	15(19)
培明	15(10)
城南	14(32)
大一	14(—)
崇文	14(12)
弘益	13(11)
大新	13(18)
德壽商	12(—)
汝矣島	12(—)
養正	12(21)
信一	12(21)
永東	12(—)
龍文	12(—)
大光	10(13)
서울	10(25)
冲岩	10(—)
中大附高	15(21)
光州	18(13)
全州	15(11)
天安	12(12)
濟物浦	11(15)
김천	11(—)
사레지오	10(—)
木浦	10(—)
晋州	10(10)
弘益	4(—)
梨大附高	4(—)
梨花	3(36)
豊文	3(5)
培花	3(—)
永登浦	2(—)

높은 競爭率 持續、合格水準 크게 向上

□□□□□

再修生 62% 地方出身 68% 차지해

□□□□□

이번 신입생의 入學願書에나타난 실태에는 몇가지 두드러진 특색이 나타났다。

①높은 경쟁율의 持續과 세칭 人氣學科(특히 經商·法政系)에 계속적인 지원현상을 보인점。

②再修生의 合格者수가 현저한 증가를 보인점。

③女學生합격자수가 작년에 비해 半減했다는 점。

④非平準化지역(地方) 高校출신들의 진출이 증가된 反面에 서울·釜山 등 平準化지역 학생들의 合格率이 저조한 점。

⑤名門高의 꾸준한 合格生 배출과 함께 高校 平準化로 新興高校세력의 대두, 同一系진학에의한 일부 商·工高가 진출한 점등을 들수있다。

◇法·商經系인기

母校는 1천3백10명모집에 4천5백19명이 응시, 平均 3·5대1의 경쟁율을 보여 後期大 最高의 경쟁율을 보였다。또한 커트라인도 昨年에 비해 50~60점정도가 높아졌고, 法政大, 經商大의 一部學科는 豫試평균성적이 2백45점을 훨씬 상회하였다。높은 우수한 학생의 合格, 즉 質的인 向上으로 內的·外的 발전의 의지와 그 양상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을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즘의 大學 志願傾向 趨勢는 母校의 지원경향에도 그대로 나타나 政外科는 12對1이라는 最高의 경쟁율을 나타내고있다。

◇地方出身격증

출신 도별合格者는 서울이 首位로 4백16명(32%)에 비해 昨年의 7백3명(51·8%)에 비해 16명이나 적어진셈。지방출신은 예년의 41·9%를 훨씬넘는 68%(8백94명)의 높은 현격한 증가를 보였는데 이를道別로보면 경기 1백79명(13·8%), 경북 (1백39명(10·7%)), 충남 1백12명(8·6%), 전북 98명(7·6%), 경남 73명(5·7%), 강원 35명(2·8%), 제주 7명(0·6%)의 순。

◇各高校고루합격

출신고교별 실태는 올해 10명以上의 合格者를 배출한 學校는 40個校로 작년의 49개교에는 못미치나, 各學校에서 고루合格했음을 나타내고있다。

◇再修生62%차지

再修生의 대거합격은 학년도 新入生 실태중 가장 현격한 증가를 보였다。재수생은 금년 8백12명(62%)으로 작년도 4백67명(35·7%)이며 출신은 나머지가 現役高校出身이다。

◇1977학년도 入試競爭率

	학과	정원	지원율
佛敎大	불교학	20	2.8
	철학	20	3.6
	인도철학	20	3.4
	미술학	30	3.1
	승가학	20	0.3
文理大	국문학	30	4.1
	영문학	30	4.2
	사학	20	5.1
	연극영화	20	5.5
	수학	30	2.8
	물리	30	2.2
	화학	30	2.5
	통계학	30	3.4
法政大	법학	25	4.5
	정치외교학	25	12.0
	행정학	25	4.6
	경찰행정	30	4.0
經商大	경제학	35	4.4
	무역학	35	5.3
	경영학	40	6.7
	전자계산	40	3.5
	회계학	30	3.4
農科大	농학	25	3.3
	임학	25	3.2
	농업경제	30	3.2
	농업생물	20	3.1
	조경학	40	3.3
工科大	전자공학	30	2.7
	전기공학	30	2.2
	토목공학	40	2.1
	건축공학	40	3.3
	화학공학	30	3.0
	식품공학	35	2.2
	공업경영	25	2.7
師範大	교육학	30	2.3
	국어교육	30	3.1
	사회교육	30	2.8
	국사교육	40	3.5
	체육교육	30	4.5
	가정교육	30	2.2
	수학교육	25	2.6
二部大	회계학	40	3.0
	공업경영	30	2.6
	전자계산	30	3.1
총계		1,310	3.5



◇후배들의 전투를비는격려문과 프랭카드들。

◇佛敎人口가首位

그밖에 보호자의 직업은 상업(33·3%), 農業(14·2%), 공무원(11%), 교원(5·2%), 會社員(20·2%), 가톨릭(3456명·2%), 기독교(4938명·2%), 불교가 72백명(42%)으로 首位를 차지해 順이다。

안전한 투자 친절한 봉사
國一證券
서울 중구 명동1가10 ☎(776)9681~5

다니원합기 을展發한무궁 의報會友東

(學) (入)

仁川女子高等學校 校長 金 濟 東
普文中高等學校 校長 李 在 福
天安女子高等學校 校長 張 星 軫
木川高等學校 校長 金 左 軍
淨光中高等學校 校長 崔 泰 鍾
仁同中商業高等學校 校長 羅 後 龍
南漢綜合高等學校 校長 李 光 薰
松谷女子中高等學校 校長 王 豹 淳
誠信女子高等學校 校長 李 鍾 根
祥明女子中高等學校 校長 裵 炫 宗
福地中高等學校 校長 안 채 란
景城高等學校 校長 金 炳 三
大新中高等學校 校長 金 漢 壽

◇以上無順◇

新羅鄕歌와 高麗歌謠硏究의 개척자로 「초서」 「카알라일」 「W·B에이츠」 「T·S엘리이트」 등을 번역소개한 英文學者로中國歷代名家의 詩文에 通達한 學者로 십수년간 구수한才談과 機智로 名講義를하던 自稱「人間國寶」 无涯 梁柱東博士가 他界 하였다。學界에 멸친 업청난 업적、東國의 學風과 學脈을 크게이룬스승의 學問은 한世代를 달리한 後學者들에의해 계승되고있다。

◇다음은 无涯선생古稀紀念論叢刊行委員會에서 1973년기념논문집과 함께 발간했던 「梁柱東박사 프로필」(국판270P)에서 學問的인 편모를간추린 것이다。

「无涯는 事理에대한 판단이 빠르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됐을때는 굽힐줄 모르며 전혀 옆을 돌아보지않고 저돌하는 성격을가진 無敵의才士다。따라서 저 방대한 「朝鮮古歌硏究」를 불과 數3년만에거뜬히 해치울수 있었던 것이다」 (所信을 굽힐줄 모르는 저돌파·趙潤濟)

『당시 日本人이 주관하던 日本學術잡지 「靑丘學叢」에 鄕歌에대한 兄의 論文이 게재된 것을보았다。주로 小倉進平박사의 著書 「鄕歌및 吏讀의 硏究」에 대한 비평과 논박이였다。이論文을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小倉씨는 당시文學박사의 학위를가진 京城帝國大學의 교수요、十數年 연구한 업적으로서의 學位論文인 것이다。그런데 无涯형은 日本 東京에 있는 早稻田大學 英文學科 출신으로서 英文學者로알려진 분인데 어느 겨를에 鄕歌에대한 조예가이다지도 심오한가 놀라는 것이였다。』

(无涯박사의 프로필·李熙昇)

『선생은 「朝鮮古歌硏究」 自序에서△區區한 微意만은 이千有餘年來 滄海의 遺珠와같이 僅僅히 갈아서 남은 귀중한 古文學의 미래의 면목을 애써 糾明하고 그眞價를 제대로 발휘시켜 후세에 전하고자하는 진실로간절한 열원이 있었기때문이다△라고 술회하고 계시거니와 한편 「이 무렵은 민족운동의 일환인 「朝鮮語學會」의 國語運動이 고조되고 小倉進平의 「鄕歌及吏讀의 硏究」의 발간에따른 선생의 學問的 民族意識이 그 직접적 동기의 하나이다』(저서로 더듬는无涯선생·崔世和)에 鄕歌에대한 조예가이다지도 심오한가 놀라는 것이였다。』

(无涯박사의 프로필·李熙昇)

『선생은 「朝鮮古歌硏究」 自序에서△區區한 微意만은 이千有餘年來 滄海의 遺珠와같이 僅僅히 갈아서 남은 귀중한 古文學의 미래의 면목을 애써 糾明하고 그眞價를 제대로 발휘시켜 후세에 전하고자하는 진실로간절한 열원이 있었기때문이다△라고 술회하고 계시거니와 한편 「이 무렵은 민족운동의 일환인 「朝鮮語學會」의 國語運動이 고조되고 小倉進平의 「鄕歌及吏讀의 硏究」의 발간에따른 선생의 學問的 民族意識이 그 직접적 동기의 하나이다』(저서로 더듬는无涯선생·崔世和)

『…「履謠箋注」의 경우도 선생님께서는 겸손하게 「… 정리된 재료」라 하셨지만 말씀 이상으로 中世前期 가요에대한 注釋的 연구의 기본문헌이 되었다。선생께서는 「古歌硏究」 (1942年刊)에서 1천8백 內外個處의 語句를 解讀하셨고 「履謠箋注」 (1947年刊)에서 8백內外個處의 語句를 주석하였다。가위 最貴 詩가요의 최대 연구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駐韓美軍撤收問題이다。「카터」대통령은 취임사에서 人權問題인것이다。

「카터」대통령은 駐韓美軍을 철수함에 있어 韓國및 日本과의 協議를 거쳐 一定한 時限을두고 美地上軍을 撤收하는 것은 可能하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이때 우리의 意見이 얼마나 反映되는가 하는것이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궁금할 일이다。

우리나라 大統領께서도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韓간의 상호불침조약을 맺으면 駐韓美軍의 철수는 반대하지 않겠다」 고 했다。우리들의 발전속에 언제까지나 駐韓美軍의 주둔을 우리들은 원치 않는 바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主國防이 성취되었을때의 問題이다。이와같은 駐韓美軍의 撤收問題는 단순한 우리나라와 美國의 利益에만 얽힌 問題가 아니고 東北亞의 平和維持와 직결된 例를 들면 신발류나 양송이、붕제품등이 輸入規制를 받을때 相對的으로 輸出國의 失業率은 증가되어 우방국을 死境으로 몰아간다면 「카터」자신이 주장한 道德的이며 倫理的인 政治理念에 反하는 결과가되지 않을까 하는것이다。

다음으로는 人權問題인것이다。

「카터」대통령은 취임사에서 人權問題에 있어서는 國內外를 莫論하고 人間의 自由와 존엄의 바탕위에서 일을 追求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지금 韓國의실정에 맞는 韓國的 民主主義를 바탕으로 先進國을 향한 모든 어려움을 참아 나가고있다。이러한 우리의 國民的 努力을 「카터」行政府는 認識하여 모든 行政的인 面에적용하여 주기를 바란다。이러한 것은 韓國과美國이라는 양대 국가의 友誼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아울러 할 것이다。

다고 생각할때 美國은 이러한問題가 단순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해주기를 바랄뿐이다。

다음으로 「카터」行政府에 바라고싶은 것은 世界市場 經濟圈에서의 自由貿易 원리의 적용인것이다。

「카터」대통령은 국내의 失業率을 줄이기 위해 國內雇傭最優先 政策으로、이와 관계되는 제품에 대하여 輸入規制를 가함으로써 世界市場에서의 自由貿易에 逆行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는 가하는 염려를 낳게하고 있다。

1월 20일정오(한국시간 21일새벽2시) 방콩동부 출신인 「지미·카터」씨는 「워싱턴」에서 제39대 美합중국 大統領에 취임、독립 3세기를 맞은 美國역사의새로운章을 열었다。우리로서도 世界의 지도국격인 우방국가의 새로운 大統領의 취임을 慶賀해마지 않는다。

民主黨출신인 「카터」 大統領은1백25년만에 南部出身 대통령이되었다。

선거 열마전까지만해도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人物의 등장으로 앞으로의 世界秩序의 方向을 점쳐보기는 우리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카터」대통령은 현재 美國民들로부터 前 「케네디」 대통령과 비등한 人氣를 유지하면서 世界第2次大戰 이후 印度支那반도에서의 越南敗戰이 가져온 미국민들의 敗北意識과 內向的 심리작용을 이용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과 동시에 흑인과 여성들을 각료에 입명하는 등 자신의 直線的이고도 대담한 성격의 일면을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같은 「카터」 大統領의 새로운 취임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에



美国新政府에 바란다

金善興 〈68 濟組合大邱出張所〉

偉業남긴学界의巨星

梁柱東博士의学的片貌



◇梁柱東博士遺影

東國의 學風·學脈 크게 이룩

語文學의 頂上—詩·評論·英文學도 구수한 才談과 機智넘친 名講義

生先東柱梁无涯 哭

无涯无涯 끝이없어, 하늘끝 끝이없어,
少年行 끝이 없고, 學問도 끝이없고,
저승도 끝 없을지니 그를그려합니다。

그 값은 永遠이요 그 삯은 銅錢으로
가가거겨 고교구규 나냐너녀 노뇨누뉴
이 문자있는 날까지 여기계시옵소서。

저기 저기 쑥굴헝에 竹旨郎얼굴이듯,
꺼칫꺼칫 松柏사이 書婆郎 손목이듯
멈칫멈칫 누엿누엿 살다 가신님이여!

장거리의 쇼에까지 그큰 그늘드리우며
알아 달라 알아 달라 이민족알아달라
애쓰시던 그마음 받아이어가오리이다。

拜哭 柱廷徐 學後

故梁柱東博士약력

▲1903年=陰6월24일 開城出生。
▲1920年(18세)=上京、中東學校 高等遠成科에 入學。
▲1921(19세)=日本 東京 早稻田大學 豫科佛文科에입학。處女作新詩「꿈노래」
▲1925(23세)=早稻田大學 文學部英文科에 進學
▲1928(26세)=早稻田大學졸업。平壤崇實專門學校교수로 부임하다。
▲1929(27세)=「文藝公論」誌發刊(3號까지)「朝鮮의脈博」등 많은 詩作발표。
▲1940(38세)10月 「朝鮮古歌硏究」草稿완성
▲1947(45세)=東國大學校 교수(뒤에 大學院長)에 就任。
▲1954 推薦會員 被選。國語審議委員。(54세)=學術院會員및 文藝公論一誌發刊(3號까지)「朝鮮의脈博」등 많은 詩作발표。
▲1940(38세)10月 「朝鮮古歌硏究」草稿완성
▲1947(45세)=東國大學校 교수(뒤에 大學院長)에 就任。
▲1954 推薦會員 被選。國語審議委員。(54세)=學術院賞 受賞
▲1957(55세)=名譽文學博士(延世大學)
▲1962(60세)=文化勳章 대통령章 受領。
▲1970(68세)=大韓民國國民勳章 寫翁花章 受領。
▲1977(75세) 2月 서울에서 別世。

主要著書=「古歌硏究」、「履謠箋注」、「國學硏究論攷」、詩集「朝鮮의脈博」、隨筆集「文酒半生記」「人生雜記」、譯詩集「엘리옷詩全集」、英詩百選」등。

祝 慶 東友會報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入學

韓國火災保險協會 감사 朱璟孝
大韓火災海上保險(주) 상무이사 金鍾鐸
新東亞火災海上保險(주) 이사 李章雨
東方生命保險(주) 이사 李錫龍
韓國自動車保險(주) 이사 秋東憲
太平洋化學工業(주) 상무이사 韓東根
太平洋粧業(주) 상무이사 李秉玉
서울藥品工業(주) 전무이사 權永弼
(주)이몽 전무이사 梁承佑
韓國機械工業振興會 상무이사 金昌松
韓國精密기계센타 상임감사 黃載天

◇卒業

〈以上無順〉

奨学誠金은 도약東国의 未来意志

開校70周年記念 奨学基金造成 마무리 단계

母校 開校70周年 記念事業으로 벌여온 奨學基金造成운동은 우리 同門들의 뜨거운 協助로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이 장학기금조성운동은 지난해 4월 同造成委員會가 발족된 以來, 1년여동안 本會와 母校가 유기적 관계를 갖고 꾸준히 事業을 벌여와 本會 할당금액 4천만원중 2천여만원은 現金化되어 定期預金을 했으며 서명현찬 미납분 1천만원, 各單位別할당추진금액 등은 금명간 거의 入金할것으로 알려와 목표액달성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번 운동은 母校 3천만원, 宗國 3천만원, 그리고 本會가 4천만원을 담당하였다. 그동안 常勝東國을 내세우며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 朝餐會, 各級單位모임 등을 통해 母校愛를 호소, 후배육성을위한 奨學基金協贊을 이끌어왔다.

당초 이 운동은 지난 年末까지 마무리 짓기로 되어있었으나 個人事情과 各單位別사정 등을 감안, 3月末까지로 잠정적인 연기를했다.

이제 이 운동은 協贊했던 同門은 물론 아직 참여하지 못했던 同門들 모두의 記念牌的 사업으로영글어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보다 榮光된 東國中興의 旗幟를 높이들고 뎃뎃이 東國人임을 내세우며, 不退의 精進隊列에 다같은 主人公이 되어야겠다. 그칠줄 모르는 同門愛는 이제 우리의 母校를 도약시키는 原動力이 될것임을확신한다.

□個人別납부現況

朴東昊同門 1백만원

효성수산(주)代表理事 朴東昊(58·林) 동문은 既署名協贊한 奨學基金 1백만원을 지난해 12月19日 모교 經理科로 完納했다.

柳周馨동문 50만원

(주) 青話商社 代表理事 柳周馨(57·農) 동문이 奨學基金으로 지난1月21日 理事會에서 署名코, 2月14日 完納했다.

個人署名納付者

▲許東華(57·法·邦洲産業(주)사장)=20만원 ▲崔載福(57·國文·有元建設(주)전무이사)=1만5천원 ▲金泰完(75·行院·대한불교금강원화회장)=1만원。 ▲玄海宗(62·經·實星貿易(주)이사)=1만원。 ▲金鉉植(57·史 경정)=1만원 ▲金和燮(부산시기획관리실장)=5천원 ▲宋秉讚(국방연구소)=1만원〈恵門會分〉 ▲金鎭祥(62·英)=1만5천원〈信用保證基金分〉 ▲楊文鍾(63·法·大韓火災海上保險株)=1만원

□個人別서명現況

李西翁宗正 10만원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李西翁(35·中央佛專) 동문이 지난5日 奨學基金으로 10만원을 署名協贊했다.

具滋春市長 10만원

서울特別市長 具滋春(75·大院) 동문이 母校奨學基金으로誠金 10만원을 지난2月19日 납부했다.

韓沃申검사 5만원

大檢公安部長 韓沃申(65·大院) 이 奨學基金으로 5만원을 지난2月14日 署名協贊했다.

黃龍浩동문 10만원

公認 會計士 黃龍浩(63·商) 동문이 지난1월21일 奨學基金으로 10만원을 署名協贊했다.

□個人別납부現況

朴東昊同門 1백만원

효성수산(주)代表理事 朴東昊(58·林) 동문은 既署名協贊한 奨學基金 1백만원을 지난해 12月19日 모교 經理科로 完納했다.

柳周馨동문 50만원

(주) 青話商社 代表理事 柳周馨(57·農) 동문이 奨學基金으로 지난1月21日 理事會에서 署名코, 2月14日 完納했다.

個人署名納付者

▲許東華(57·法·邦洲産業(주)사장)=20만원 ▲崔載福(57·國文·有元建設(주)전무이사)=1만5천원 ▲金泰完(75·行院·대한불교금강원화회장)=1만원。 ▲玄海宗(62·經·實星貿易(주)이사)=1만원。 ▲金鉉植(57·史 경정)=1만원 ▲金和燮(부산시기획관리실장)=5천원 ▲宋秉讚(국방연구소)=1만원〈恵門會分〉 ▲金鎭祥(62·英)=1만5천원〈信用保證基金分〉 ▲楊文鍾(63·法·大韓火災海上保險株)=1만원 ▲玄海宗(62·經·實星貿易(주)이사)=1만원。 ▲金鉉植(57·史 경정)=1만원 ▲金和燮(부산시기획관리실장)=5천원 ▲宋秉讚(국방연구소)=1만원〈恵門會分〉 ▲鮮于明子(69·史)=5천원 (救農東友會分) ▲鄭在琪(68·政外·라미화장품총무과장)=3만원 ▲지태용=1만5천원 ▲許東華(57·法·邦洲産業(주)사장)=20만원 ▲崔載福(57·國文·有元建設(주)전무이사)=1만5천원 ▲金泰完(75·行院·대한불교금강원화회장)=1만원。 ▲玄海宗(62·經·實星貿易(주)이사)=1만원。 ▲金鉉植(57·史 경정)=1만원 ▲金和燮(부산시기획관리실장)=5천원 ▲宋秉讚(국방연구소)=1만원〈恵門會分〉 ▲鮮于明子(69·史)=5천원 (救農東友會分) ▲鄭在琪(68·政外·라미화장품총무과장)=3만원 ▲지태용=1만5천원 ▲鮮于明子(69·史)=5천원 (救農東友會分) ▲金鉉植(57·史 경정)=1만원 ▲鄭在琪(68·政外·라미화장품총무과장)=3만원 ▲지태용=1만5천원 ▲金鉉植(57·史 경정)=1만원 ▲鄭在琪(68·政外·라미화장품총무과장)=3만원 ▲지태용=1만5천원

문이 지난1월21일 奨學基金으로 10만원을 署名協贊했다.

個人別署名協贊者

▲関俊基(62·史·大韓損害保險協會이사)=1만원 ▲李英茂(50·史·建國大교수)=2만원 ▲李鳳淳(58·農)=5천원 ▲宋錫球(61·哲·國民大學교수)=1만원(東大新聞同人會分) ▲金用鉉(64·農·원산중)=1만원(구농동우회분)

□親睦別납부現況

◇東青會

東青會(회장=趙碩行)는 장학기금 1백만원을 회원각자에게 분담 個人別로 납부중이며, 현재 47만원이 입금되었다. ▲関庚仁(69·國文·신흥분제Co.사장)=10만원

◇法雄臺

法雄臺(명예회장=申相斗)는 장학기금으로 19만8천원을 지난 1월31일 납부했다. 당초할당액은 10만원。 ▲申相斗(64·法)=5만원 ▲趙漢英(65·法)=5만원 ▲朴熙滿(64·法)=2만원 ▲尹汝達(69·法)=1만원 ▲金熙玉(72·法)=1만원 ▲徐東浩(67·法)=1만원 ▲李庚燦(65·法)=1만원 ▲金天坤(67·法)=5천원 ▲張吉錫(65·法)=5천원 ▲崔亮錄(67·法)=3천원

◇61年政治科

61年政治科 東友會(회장=李哲洙) 58年 政治科 모임(간사=朴鍾天)에서는 奨學基金으로 4만원을 모금, 本會에 入金시켰다. ▲尹福昌=1만원 ▲金仁煥=1만원 ▲李錫龍=1만원 ▲金珖柱=5천원 ▲金海龍=5천원。

□學科·期別현황

◇58年政治科

思北(清州)支部(회장=權重聲) 東友會는 奨學金 할당액 15만원을 초과, 20만원을 지난 2월4일 朴相一(忠北大교수) 동문편에 本會로 직접 납부시켰다。 ▲權重聲(忠北道警)=5천원 ▲민경인(신흥제분Co. 대표)=3만원 ▲박재수(일흥시멘트대표)=3만원 ▲안민동(신진농약사대표)=3만원 ▲김태희(한양물크사대표)=2만원 ▲최종태(청주문화방송)=1만원 ▲안종열(청주우체국장)=1만원 ▲박상일(충북대학교교수)=1만원 ▲홍권공은(수협판매장장)=1만원 ▲백낙형희(천일주유소)=1만원 ▲임태도(건설공제조합장)=1만원 ▲정창훈(충북대학교교수)=2천원 ▲김태호(청주문화방송PD)=2천원 ▲이순창(신흥제분Co. 관리과)=2천원 ▲임창균(군민은행청주지점)=2천원 ▲황인규(중앙파출소)=2천원 ▲박남오(

母校消息

새 東国人 入学式 성료



◇入學式에서 李道根 총장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勤勉·誠實한 자세」 다짐

3日體育館서 首席奬學金등 수여

새東國人 1千3百 10名을 맞이하는 7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지난 3일 오전 11시 體育館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이날식전에는 李道根 총장을 비롯, 各學處長、教授、직원、同窓會간부와 1천5백여명의 학부형이 참석하여 「길을 여는 南山 코끼리」의 雄志에찬 새출발을 축복해 주었다。

開式을알리는「東國의종」 타종과함께 三歸依禮로 시작된 이날 입학식은 李총장의 「입학허가 선언」에이어 首席合格者 鄭良云(法政大法學科·관악高卒)군의 신입생 선서가 있었다。이날 李총장은 식사를통해 『지혜의 체득과 자비의 실천、불퇴전의 정진만이 자기결정의 능력신장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理事長 尹月下님을 비롯하여 崔載九동문회장은 물론 傳統있는 母校71년의 역사창조의 기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李正覺院長

法堂 正覺院 개원

「東國의 鍾」 打鍾式도

母校 法堂인 正覺院(院長‖李智冠 博士·僧伽大教授)의 開院式과 「東國의 鍾」 타종식이 지난 2月23日 오전 11시 梵鐘閣앞에서 거행되었다。이날 식전 正覺院 院長 李宗正、李時翁 총장、曹溪宗 宗務院 黃明秀 총무부장、西根 崔載九 동문회장、大韓佛教曹溪宗 尹月下 교무부장 등 2백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開院式은 삼귀의례로 시작、正覺院 李智冠 院長의 「正覺院의 건립에 즈음하여」 라는 法語의 낭독、李總務 趙昌華 理事長과 尹月下 교무부장의 「한국불교 재가불자의 정체성과 그 역할」 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崔載九 동문회장의 축사、李西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의 축사가 있었다。

타종은 崔載九 동문회장을 비롯、文泰海 동문회 부회장、尹天泳 사무국장、朴恩會 부회장、黃明秀 동문회 부회장、金遺榎 동문회 부회장、朴宗植 동문회 부회장、金信煥 동문회 부회장、崔圭宣 동문회 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月23日 오전 11시 梵鐘閣앞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開院式은 타종에 이어 李智冠 院長의 「正覺院 건립의 취지」 보고、正覺院 李智冠 院長의 「正覺院 건립의 의의」 보고、趙昌華 理事長의 「한국불교 재가불자의 정체성과 그 역할」 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崔載九 동문회장의 축사、李西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의 축사가 있었다。

그간 道場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서울市와함께 총예산 4천5백여만원을 들여 이전·복원한 건물로서 총90평에 5백명을수용할수있다。

한편 「東國의 鍾」은 초대단 부들이 작년 6月 梵鐘佛事推委를결성、범종조성 및 종각 落成과 함께 打鍾式을 가진것이다。이날 참석한 大王神鐘동에서 國寶인 聖德大王神鐘의양식은 현대적인 형태를 취했고、조각은 崔圭宣 동문이 담당했다。

校內外 총 58명

1學期 奬學生명단發表

學生處(處長‖鄭允武 博士)에서는 77學年度 第一學期 對外奬學生및 校內奬學金 수혜자 명단을 지난 1日 確定、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총58명으로 그중 對外奬學生은 어연호(林·4)군의 20명、校內奬學生은 首席奬學生 1명을 비롯 女學生 38명이다。

한편 우등장학생 1백28명의 명단은 지난해 12月 14日 발표된바있다。

▲首席‖38명▲5·16‖6명▲仁村‖1명▲신진‖1명▲세림‖1명▲산학협동재단‖7명▲운정‖3명▲육영수여사‖1명。

첫 教授會議개최

各處·室別 사업計劃발표

會議가 1977학년도 첫 教授會議가 지난 2日 오전10시 본관 교수 會議室에서 李道根 총장을 비롯한 세미나실에서 李處長 및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교수회의는 李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各處·室의 작년도 업무보고및 신년도 사업계획보고로 진행되었다。各處·室別 중요내용은 다음과같다。

▲敎務處‖講義進度및 目要 ▲學生處‖勉學雰圍氣 造成 深化、學園의 自主的 精神 戰力의 강화、조직 指導力量의 培養、機能的 對應能力의 향상、자율적 健全活動의 伸張 ▲總務處‖東國文化館설계 및 시설보수、도서확충、體育 選手합숙소(체육관옆)신축、후문 주변의 造景사업 ▲企劃室‖第2校地확보、규정집발간、지방순회학술강연회개최、學校PR용 映畵 제작、교육大學院및 特殊併設學校 설립추진등。

徐京保교수

忠南大서名譽哲博

徐京保(佛敎교수) 박사는 지난2월25일 忠南大에서명예철학박사 學位를 받았다 徐박사는 이미 美國등에서 哲學박사학위와 名譽文學博士등 3개의 박사학위를 받은바있다。

黃哲淳군出戰

킹스컵복싱대회

오는 20~26일 泰國 방콕에서 열리는 제3회 킹스컵 국제복싱대회에 모교 黃哲淳(體·2)군이 밴텀급代表로 뽑혔다。

알 림

東友會報는 三萬同門 여러분의 相互交流를위한 紙上架橋입니다。

①東友會報에 실릴 原稿를 수시 接受합니다。(詩·隨筆·꽁트·論壇·提言·기타)

②同門들의 各種 身上變動事項을 提報바랍니다。(昇進·轉補·就業·結婚·訃音·移轉·開業·出入國·기타)

③東友會報는 同門들의 적극적인 協贊으로 成長하고있읍니다。

◇年會費는 2천원입니다。(個人別납부 또는 地域·職場·學科·期別등 團體납부환영)

◇廣告를 게재하실분은 ㉗8568로 문의바랍니다。

④東國人名錄(同窓會員명부 4집)을 계속 배부중이오니 속히 수령바랍니다。

⑤주위의 同門들께 상호 알리어 東友會報의 빠짐없는 구독을 바랍니다。(졸업년도·學科·주소·직장 전화번호·이름·동을 明記하여 事務局으로 연락바람)

1977년 3월

서울특별시중구필동 3가26

㉗8568 (直)㉗8131~9 (交)297

東國大學校同窓會

年會費 납부자 名單

年會費를 냅시다!

<年會費는 同門1인당 2천원이며, 납부처는 本會사무국 (27—8568) 입니다。>

▲신년수(62·經)=2,000원
▲정병희(58·經)= 〃
▲김영상(61·法)= 〃
▲박상일(66·大院)= 〃
▲김현식(57·史)= 〃
▲유인진(71·農)= 〃
▲박상윤(60·政)= 〃
▲李景塡(61·經)= 〃
▲洪性畯(63·〃)= 〃
▲姜明植(〃)= 〃
▲金演洙(〃)= 〃
▲全鑾式(〃)= 〃
▲朴海春(61·經)= 〃
▲李來권(63·經)= 〃
▲尹鍾奭(73·英文)= 〃
▲朴宥信(72·政外)= 〃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理事會費를 냅시다!

理事1인당 年2만원

<理事會費는 理事1인당年2만원입니다。未納하신 理事께서는 빠른時日內에 납부하여 주셔야겠읍니다。>

〈76年分〉

▲文泰植(49·史)=20,000원
▲金遺榎(51·政)= 〃
▲朴恩會(60·英)= 〃
▲朴應變(51·國)= 〃
▲黃哲貞(51·經)= 〃
▲崔共喜(53·經)= 〃
▲安禎蘭(53·經)= 〃
▲白南伸(54·英)=5,000원
▲金容浩(54·史)=20,000원
▲李相直(54·經)= 〃
▲趙昌華(55·經)= 〃
▲鄭世鉉(57·史)= 〃
▲金東正(57·法)= 〃
▲柳周馨(57·農)= 〃
▲鄭址鎬(58·數)= 〃
▲金明魯(58·化)= 〃
▲池喜永(59·哲)= 〃
▲沈興洙(59·林)=5,000원
▲趙汀植(60·物)=20,000원
▲趙炳鳳(67·大院)= 〃
▲印丁一(72·行院)= 〃
▲宋熙萬(75·行院)= 〃
▲尹蓮相(75·行院)= 〃
▲李相龍(75·經院)= 〃
▲金在玉(49·史)=5,000원
▲金弘模(65·商)=20,000원
▲黃太郎(63·國)=10,000원
▲李雨榮(59·경)=20,000원
▲鄭寬溶(58·法)= 〃
▲白鍾秀(67·응)= 〃
▲黃慶石(73·行院)= 〃
▲鄭在哲(52·政)= 〃
▲李鍾泌(49·專)= 〃
▲李肯珪(65·政)=5천원
▲許順五(69·行院)=2만원
▲鄭圭完(65·經)= 〃
▲朴相鉉(74·行院)= 〃
▲洪斗杓(60·法)= 〃
▲吳昌均(61·史)=10,000원
▲吳鎭模(61·法)=5,000원
▲閔俊基(62·史)=20,000원
▲朴忠一(62·法)= 〃
▲李正煥(62·經)= 〃
▲羅洞榮(63·佛)=5,000원
▲金正雄(63·法)=20,000원
▲黃在成(63·經營)= 〃
▲金宜洛(65·化)= 〃
▲趙鍾學(65·經)= 〃
▲金教根(65·經營)= 〃
▲吳弘明(66·農)=5,000원
▲鄭聖采(67·法)=20,000원
▲鄭在琪(68·政)= 〃
▲丁永吉(69·統)= 〃
▲韓 賢(70·行)= 〃
▲鄭允武(58·大院)= 〃
▲韓沃申(67·〃)= 〃
▲南基一(72·경영)= 〃
▲李鍾范(60·法)= 〃
▲秋東憲(64·大院)= 〃
▲趙重鎭(58·政)= 〃
▲李泳植(56·政)= 〃
▲金聖涉(53·政)= 〃
▲王豹淳(55·政)= 〃

〈77年分〉

▲尹蓮相(75·行院)=20,000원
▲印丁一(72·〃)= 〃
▲朴應變(51·國)= 〃
▲柳周馨(57·農)= 〃
▲韓沃申(67·大院)= 〃
▲朴相鉉(77·行院)= 〃

나무와 더불어 자라나는 국민의 기업
社會式株式業産昌鮮
●선·페니개 / 건창합판제조원

會長團月例會

제반운영사항논의

奬學基金조성등 本會 제반운영사항을 논의하기위한 會長團 1월 월례회가 지난 1월16일 朴恩會부회장宅에서 열렸다。

崔載九회장을 비롯 文泰植、金遺榎、黃明秀、朴會부회장、尹天泳사무국장이 참석한 1월 월례회에서는경과보고에 이어、장학기금조속수금방안、신년 理事會개최건등을 협의했다。

총회 시임 行銀興朝

해겸宴送歡 원 기 회 이상기

朝興銀行東友會(회장‖임창우) 임시총회가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2月16日 저녁7시 K음식점에서 열렸다。

李相基(經·60·마포지점代理) 회원의 美로스안젤레스 移民환송宴을 겸한 이날 모임에서는 장학기금조성건과 회원상호간의 경조등을 논의한뒤、만찬으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農學科東友會

新年理事會개최

農學科東友會 新年 理事會가 지난 2월12일(土) 오후1시 市內 퇴계로4가 大林亭에서 柳周馨회장을비롯한 理事15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학사업 협조방안과 임시총회개최및 同會 명부정리등을논의했다。

清州支部定總

會長에權重聲被任

清州(忠北) 支部 정기총회가 지난1月20日清州市內 금관식당에서열려 회장에權重聲(49·전문·忠北道警交통계장) 동문을선출했다。

회원20여명이 참석한이날 모임에서는 장학기금 조속마무리및 납부방법등도 논의했다。

▲회장 權重聲 ▲부회장崔鍾泰(61·法·清州MBC총무국장) 閔庚仁(69·國文·신흥제분社長) ▲총무 박재수(69·行院·삼영양조장대표) ▲이사 안종열(청주우체국장) 박상일(忠北大교수) 정형태(産銀清州支店) 안민동(農業社社長)

開校70周年紀念

奬學金첫支給

開校70周年紀念으로 벌인 奬學基金造成운동이 결실、이번 新入生에게 첫 장학금을 支給했다。장학금은그동안 모금한 利子로 7명에게 各5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승우(佛敎) ▲서동석(英文) ▲정영수(行政) ▲전현국(貿易) ▲최준태(造景) ▲이정갑(國史敎) ▲구자민(僧伽)

文協간부多數차지

理事長·副理事長등

지난1월31일 시내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韓國文人協會 제16차 정기총회에서 徐廷柱동문이 趙演鉉동문의 뒤를이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부이사장엔 李東柱동문(시인·惠專卒)、詩分科委員長엔 黃命동문(시인·국문과卒)、회곡분과위원장에 吳學榮동문(극작가·국문과출)이 각각 선출되었다。

李網鉉동문別世

記協會長등역임

韓國記者協會 初代·2代 會長을 역임한 言論人 李網鉉(51·國文科) 동문의 永訣式이 滄川洞 故人의 自宅에서 韓國記者協會(會長‖李肯珪同門)葬으로 엄수되었다。

한식 재래 기와
일반건설공사, 문화재공사
사찰신축및, 보수공사
신용과기술의상징
昌元窯業株式會社
서울·城東區 城內洞 218
☎(55)5041·3306